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8월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현신이 깃들어있는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여러가지 최첨단 기계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경비행기들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정신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목표별, 단계별로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기계제작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뿐아니라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모든 기계제품들을 설계상요구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인 새로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함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하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경이적인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결과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도약시킬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나라의 기계제작



공업을 더 높은 곳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투쟁을 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기계제작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뿐아니라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모든 기계제품들을 설계상요구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새로운 기술공정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협동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빤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제품의 질을 담

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시험설비들과 검측설비들을 그흔히 갖추어놓으며 도장 및 인쇄공정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공장현대화사업에서 설비현대화보다 더 중요한것은 인재육성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력량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견과 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시험비행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구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비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들이 조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푸른

창공을 날으는 경비행기들을 바라보시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에서 군용비행기뿐만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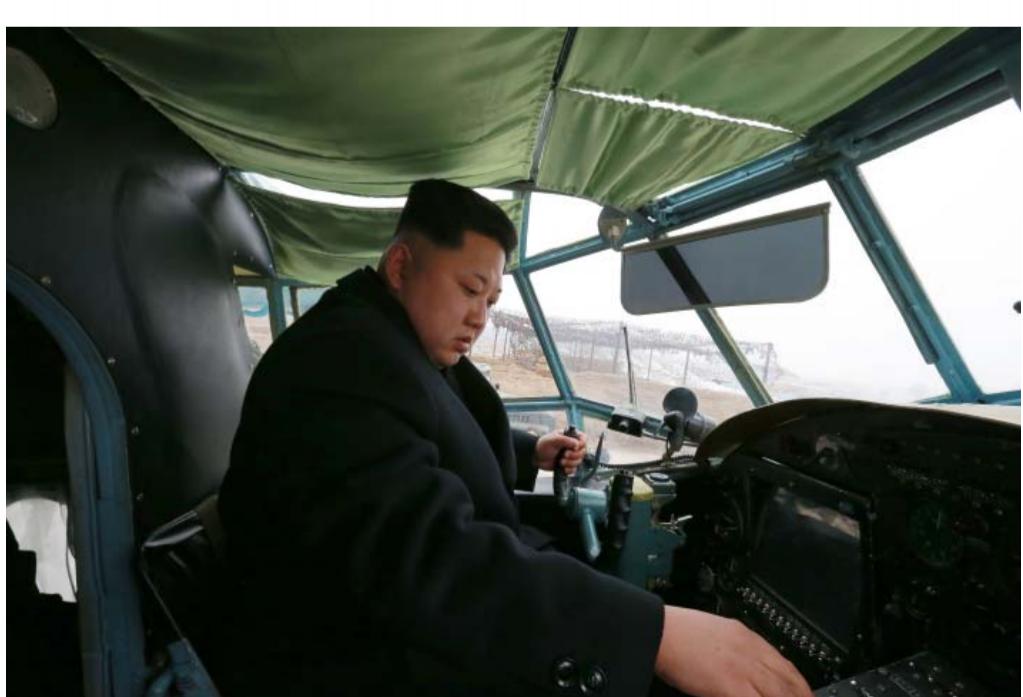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착륙시험비행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소리가 아주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경비행기를 만들데 대한 지시를 주고 견본도 보내주었는데 해당 부문과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판단위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모든 장비, 장치들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백승의 기상을 떨치시는 공격형의 령장

지금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은 《북조선봉파》를 공언하며 봉쇄와 압살의 동동이를 최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 시각에도 이남의 땅과 하늘, 바다를 북침을 위한 위험천만한 《독수리》연습의 무대로 만들어놓고 북침의 불구름을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적대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그러나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적대세력은 자기들이 맞서고 있는 상대가 얼마나 강하고 저들의 북침전쟁소동이 얼마나 무모한지 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결코 적대세력의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여 평화를 구걸할 나라가 아니다. 자위의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상의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유일의 군대인 북의 군대를 당할자는 이 행성에 없다고 본다.

특히 북에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정규전과 유격전을 비롯한 모든 전법에 능통하신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계신다. 이 점을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새겨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일단 결심하시면 벼락같은 타격전으로 백승을 멸치시는 공격형의 령장이시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해 우리장군은 군사에도 밝고 첨단과학기술에도 밝으며 우리 민인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확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백두산형의 장군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백두산형의 장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깃들어있고 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민족자주위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며 선군애국위업실현의 영원한 등대이다.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리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 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백두산을 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계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백두산에 오르시여 불어치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최후승리를 안아올 크나큰 응지를 무르익히시였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끌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칼바람부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삼천리 강토를 굽어보시던 그분의

승업하신 영상을 조국방문기회에 기록영화의 화면으로 빠오면서 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넘치였다.

그분께서 북의 올해 국정방향을 밝혀주는 신년사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신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그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니시고 북의 군대와 인민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힘있게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금 조국에서 펼쳐지는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모습들을 보느라면 원수님의 기상이 저절로 안겨온다. 보통 1년 또는 수년이 걸릴 대상물도 불과 몇개월안에,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인민군대를 내세워 바다도 새로 개척하여 황금해의 역사자를 써나가시는 원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답보와 주저를 모르시고 일단 결심하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다.

젊고 폭기와 정열에 넘치신 그분의 정력적인 지도와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해 북은 국제경기들에서도 수많은 금메달을 련이어 따내며 체육강국을 향해 출발음치고 건설에서도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조선의 놀라운 현실에 대해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도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는 백두의 기상과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빨찌산식령도, 천하를 휘여잡아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백승의 령도, 숭고한 계승과 대담한 혁신의 불멸의 령도》라고 전하였다.

백두의 기상과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그분의 현명한 령도는 국가방위를 위한 사업에도 그대로 이어져 최근년간 군대

의 전투력과 싸움준비완성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에 조직지도하신 인민군대의 군사훈련도 일단 침략의 무리들이 덤벼들면 정신차릴새없이 적의 아성을 송두리채 요정내는 백두의 공격기상이 력력히 차넘치고 있다.

그분의 지도밑에 진행된 비행사들의 전투비행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항공륙전병들의 강하훈련 등이 그 대표적례이다.

모든 군인들을 펼펼 나는 싸움군들로 만들어 그 어떤 불의의 정황과 조건에서도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직접 정황과 전투임무를 하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투진행장소를 정해주시면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지도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간적인 풍모에 대해 말할 때 유모아도 빼놓을 수 없다. 유모아는 인간생활에서 하나의 필요한 요소이다. 장군님께서는 유모아를 아주 잘하셨고 하시는 유모아도 사람들에게 줄겁게 하면서도 귀중한것을 깨우쳐주는 아주 뜻이 깊은 유모아들이었다.

주체88(1999)년 8월의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양어사업소를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양어장주변의 지대적 특성을 설명 한 그곳 일군은 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선녀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흥미가 있으신듯 왜 선녀봉이라고 하는가 물으시였다.

옛날에 선녀들이 물맑은 이곳 샘터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내려오던 봉우리라고 하여 선녀봉이라고 부른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호방하게 웃으신 장군님께서는 이어 지금은 저렇게 산에 나무 한

대 없이 번번한데 선녀들이 이내려오면 어디에 물을 숨기고 옷을 벗겠는가고 하시였다. 뜻있는 유모아로 산림조성과 보호가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여서는 하루에 해병들

였고 또 어느 때인가는 평양의 대성산유희장에서 려주신 이야기며 대통령과 손을 맞잡아 높이 드구를 태보시면서 아마 여기에 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늘에서 뱃글 뱃글 돌면서 쏟살같이 달리는 판성단차를 보고 손자, 손녀들에게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 하다가도 우

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신 이야기며 대통령과 손을 맞잡아 높이 드리며 웃으시던 장군님이시였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평양에 왔던 김대중대통령 일행과 수행기자들은 장군님의 기지있는 유모아에 자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연희장에 서로 떨어져 앉아있는 대통령과 부인을 보시며 김대중대통령이 그래서 리산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유모아를 하시며 같이 앉

시면서 소대가 아니라 중대급으로 테리고 와도 일 없다고 손님대접을 후하게 하겠다고 하시고는 안해가 가죽을 좋아한다는 데 평양에 오면 가죽을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반가운 손님의 판랑료는 많이 받는데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가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로씨야방문의 나날 하바롭스코의 원동군관구산 하에 있는 한 사단에 가시였을 때에는 그들이 준비한 선물과 조선에서 준비한 선물이 일치한것으로 하여 섭섭해하는 사단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정찰병》들이 범교환을 진행할것을 제기한 것을 보면 일을 아주 잘 했다고,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이미 알고있었다고 하시여 서로의 감정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접근시켜 주시였다. 기지있는 유모아로 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에 로씨야사람들은 즐겁게 웃으면서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리경순

김정일장군의 인간적 풍모

유모아를 아주 잘하신분

이 급식하는 콩량을 알아보시면서 다른 부대들보다 콩공급량이 많지 못해 선듯 대답못하는 일군들에게 바다에다 콩을 심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고 유모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먹이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새로 일떠선 소목장을 돌아보시면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소를 기르니 이제는 목동의 퍼리소리라는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해학적으로 말씀하시

계신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북의 군대는 적대세력의 그 어떤 도발과 침략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천명하시였다.

이는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뛰어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백두의 공격기상을 지니신 백두령장만이 내리실수 있는 단호한 결심이고 선언이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출판물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은 결심이 단호하고 바로 행동에 움기는 기질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결심하면 주저할줄 모르고 한번 타격하면 불바다로 만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기질을 쉽게 봐서는 안된다.》고 전하였다.

만약 적대세력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와 수치를 망각하고 또다시 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수도 없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를 올리시려는것이 그이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오늘 인민군대의 조준경안에는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본토까지 파악으로 되어있고 인민군장병들은 침략세력이 조국의 령도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정벌을 안길 멀적의 의지에 충만되어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위대한 령장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결심과 의지, 단호한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김주영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인민들의 한결 같은 넘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이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4월 11일부터 17일 까지 평양의 극장, 음악당, 회관들에서 여러 부류로 나뉘어 단독, 조별, 경축공연 형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수령 흄모의 송가들이 울려퍼지게 될 축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주체예술발전과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해나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표시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제4차 4월의 진행된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3년은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국가활동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해온 나날이였다. 정치년 한이 오래지 않은 깊으신 조선의 지도자가 나라와 인민을 어떻게 이끌고 시련과 난관은 어떻게 헤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모두가 지켜보아왔다.

3년이면 길지 않은 세월이다. 조선은 지금 최대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 정치체제는 보

다 굳건해지고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힘도 최대로 강화되었다. 경제와 문화, 체육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는 경이적인 성과와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무슨 힘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였는가.

그 기적의 근저에는 무엇이 놓여있는 것인가.

가장 먼 곳부터, 가장 낮은 곳부터

흔히 인간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의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돌보고 내세우는 것이 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정치인들도, 국가나 정부의 수반들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자기의 정치자반이 되고 있는 사회계층을 특별히 등용하고 그 리익을 대변하느라 애쓴다. 그래서 특권계층이 생기고 측근이라는 말도 있다.

조선에서 김정은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평도자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땅이 꺼지게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인민에게 가닿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조치는 추운 겨울날 추모식장에서 호상을 서느라 손발이 얼가봐 보내주신 방열띠, 따끈한 우유였고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최대 국상의 나날에 집집마다 보내주신 물고기들이였다.

세계가 조선의 김정은평도자께서 이제 어떤 정치를 펴겠는가 관심하며 주시하던 2012년 첫 아침 신문에 보도된 그이의 영상은 대원수님들의 발자취어린 땅크부대에 혁사적인 첫 현지시찰을 가시여 병실과 식당부터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들보아주시고 현지의 군인들과 팔을 끌고 감동깊은 사진을 찍으시던 자애로운 모습이었다.

원수님께서는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끌어안으신다. 원수님의 정치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간세상에서 제일 고독하고 불행한 삶은 아마 부모없는 고아들의 운명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정치의 가장 따뜻한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부모없는 아이들이다.

다 끈전해지고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힘도 최대로 강화되었다. 경제와 문화, 체육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는 경이적인 성과와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무슨 힘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였는가.

그 기적의 근저에는 무엇이 놓여있는 것인가.

조선의 《특권계층》

후대중시, 미래중시의 정치를 펴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다.

친부모의 살뜰한 정을 누

구보다 그리워하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여러 차례나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행복의 큰 집까지 풍치좋은 대동강반에 번듯하게 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온 나라를 감동시키고 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도 수도 평양과 제일 멀리 떨어지고 최남단, 최대 열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섬방어대, 오성산의 카칠봉초소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부터 찾으신다. 3년 전 긴장이 최대로 서려있는 판문점을 시찰하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병실도 돌아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고 병사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몇해 전 최대 열점지역에 위치한 초소의 군인들을 찾아가시여 병실과 식당, 세면장도 돌아보시고 너무도 외진곳에 멀

이 원수님의 정치이다.

정말로 말없이 애국의 한마

음과 성실한 땀으로 조국을 받들고 있는 평범한 근로인민들을 제일로 위하고 내세우고 사랑과 배려를 가득 베풀어주는 것

이 원수님의 정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는가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떠난 경제발전

이란 있을 수 없고 경제의 발

전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나는 조선식 경제발전이며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현

대적인 새로동자합숙이 일떠

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동자세상이라고 저마다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경제

발전의 초점은 근로하는 인민

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겠

배움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소원이다. 인간이 자연과 사회,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교육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미래의 운명개척을 주동해준다.

그러나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행성에는 배움의 욕망은 끌어 없어도 돈이 없어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그 아이들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뻔한 리치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아이로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제의 혜택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얼마전 4월 1일 개학날에도 공화국의 각지는 무료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학부형들, 가족, 친척들, 온 나라 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로 하여 한껏 설레이었다.

희망과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돈 한푼 안내고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곳곳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

◎ 자본주의가 홍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중한 것 (2) ◎

누구나 평생 무료로 배운다

장대학 등에서 일하면서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사람들을 평생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훌륭한 교육제도와 시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고마운 이 제도와 정치가 인

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둘이 보면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조개가시며 전반적 11년제의 무교육의 대문에 들어선 어린이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첫

수업 참관도 하시고 그들이 이용하는 교과서와 학습장도 보아주시며 친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지고 새로 건설된 평양제 1중학교를 찾으시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든다.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나라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 속에서 공화국은 배움의 나라로 전변되었고 평범한 인민의 아들딸들이 누구나 배우고 자기 희망을 꽂고 퍼가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 사령, 미래사령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새 세대들을 얹은 금은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세계 교육 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시며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책 동을 물리치며 강성 국가를 건설해나가고 있는 조선에서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직

온 나라의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한W의 전기, 한W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국력 아껴 써야 할 때이다.

그속에서 소학교 학제를 1년 늘이고 6년제 중학교를 새로 3년제 초급 중학교와 3년제 고급 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인 많은 연구와 노력, 자금이 들어야 하는 아름찬 사업이다.

교육이 발전하였다는 나라들에서도 인재 양성에 유리하게 학제를 들이는 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투자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하여 그 것을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전략적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 판례로 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며 의무교육제를 12년간으로 늘리고 있다. 그것도 역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무료교육이다. 2012년에 진행된 최고 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최

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그 법령에서도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공화국에서는 교육부문에 국가적 투자가 날로 더욱 집중되고 있고 전사회적으로 각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일생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조선에서만 펼쳐지는 시책이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이 훌륭한 인민적 시책을 홍내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이 나라들에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은 애당초 학교 문 앞에도 못 갈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비 난에 허덕이며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무거운 학비 부담으로 미국의 뉴욕시에서 만도 해마다 2만 여명의 고등 학생들이 중퇴하고 있다니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분의 1이 자기들 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비 부담을 걸며지고 있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였다.

한지막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교육 그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의 학비까지도 날마다 늘어나 부모들이 자식들을 마음놓고 공부 시킬 수 없으며 학비 때문에 부모들과 자식들이 자살하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에서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 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마음놓고 자식을 공부 시킬 수 있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뿐이다. 북에 그냥 있었으면 일생 동안 무료로 공부하고 발전도 이루게 되었을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반 남조선 청소년들의 처지보다 더욱 비참

하다. 그들이 무거운 학비 부담과 《탈북자》라고 하여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학업을 도중에서 포기하는 비율은 일반 남조선 학생들의 3배(고등학교인 경우 무려 5배)에 달한다고 한다.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사업도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남조선 사회이고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이다. 올해 초 남조선 합지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다.

《오늘 부모들에게 교육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일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가 아니라 <얼마짜리가 될 것인가> 를 늘 고민하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 순 없는 법이다. 불안하고 또 불안할 뿐이다. 유령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그러니 조선의 무료의무교육제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중한 것인가. 공화국인민들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사회주의 제일일세> 하며 노래를 홍겹게 부르는 것 또한 이 때문이 아니라. 본사기자 김춘경



조국의 품에 안겨 오늘은 대학생으로

온 나라가 기쁨 속에 맞이한 4월 1일 개학날, 뜻깊은 이날 평양의 여러 대학들에서 또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져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조선 당국에게 유괴당되었던 학생들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이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돌이켜보면 나쁜 놈들의

학의 넓은 교정으로 들어선 것이다.

문철은 평양 건축 종합대학에, 박광혁은 김형직사범대학에, 정광영은 김책 공업 종합대학에, 류광혁은 평양 인쇄 공업대학에 입학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이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돌이켜보면 나쁜 놈들의

국땅에까지 끌려갔던 이들을 구원해주고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내세워 준 것은 조국의 품이었다.

조국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면 하였던 이들을 탓하지 않고 량강도 안의 수재들을 맡아키우는 영웅 혜산제 1중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이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방조 속에 제 1중학교 정안을 성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학습 뿐이 아니었다. 추우면 추울 세라 더우면 더울 세라 철따라 새 교복도 안겨주고 구미에 맞는 음식까지 해주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혜산 시민들, 진정 그들 모두가 이들의 친아버지, 친어

머니였다.

그런데도 동족 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극우 보수 언론들과 반북 대결 분자들은 이들이 <처형되었다.>느니, <수용소에 갇혀 있다.>느니 하였으니 이보다 더 추악한 행위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병든 자식, 못난 자식 일 수록 더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것이 고마운 조국의 품이다.

하기에 만사람의 축복 속에 대학교정에 들어서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파 열심히 배우고 배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제도를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가 넘쳐 있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가는 딸애를 보느라니 마치 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조금 있느라니 개학 모임이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꽃보라가 뿌려지는 속에 신입생들이 들어서고 이들을 축하하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첫 수업이 있었다. 수업에 앞서 선생님은 출석부의 명단에 따라 차례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 각자의 희망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름난 체육인이 되겠습니다.》

... 아이들의 희망은 제가 끔이었다. 하지만 다포

개학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지난 4월 1일 이날 나는 소학교에 입학하는 막내 딸의 개학식에 참가하였다.

올해 7살, 가방을 메고 기쁨에 겨워 토끼껌을 뛰며 학교로

가는 딸애를 보느라니 마

치 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조금 있느라니 개학 모임이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꽃보라가 뿌려지는 속에 신입생들이 들어서고 이들을 축하하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첫 수업이 있었다. 수업에 앞서 선생님은 출석부의 명단에 따라 차례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 각자의 희망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름난 체육인이 되겠습니다.》

... 아이들의 희망은 제가 끔이었다. 하지만 다포

부가 크고 아름다웠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은 고작해서 자식들을 학교 문전에라도 세워보는 것 이었다. 그러나 나라 없던 그 세월에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다.

나라가 해방되고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세상이

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책 동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소학교제를 1년 늘리고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 중학교와 3년제 고급 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초중등 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정책이 있어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제의 실시라는 크나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화국은 전진하였고 발전된 교육의 나라, 사회주의 문명국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후대들은 지식 경제 시대를 선도해나갈 더 크고 광활한 꿈, 배움의 히트를 풀 것이다. 그 자신이 오늘은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라는 배움의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어찌 1년이라는 교육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만 보아야 하겠는가.

아직은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제국주의자



박광혁 학생(오른쪽에서 세 번째)



정광영 학생



류광혁 학생

개학 날의 토끼

수필

개학 날의 토끼

공화국의 도처
에 홀륭히 일떠
선 립체를 동영
화관들에서 3차
원 립체영화관람

을 즐기는 근로자들과 청
소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여기는 풍치수려한 룸과
인민 유원지에 위치한
고 있는 룹체를 동영화관
판. 가상세계의 3차원 립
체영화를 룹동의 자의
진동과 움직임이 안반침
된다. 보면서 현실세계와 같
은 즐거움과 긴장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곳에
들어서면 하늘과 땅, 바다
의 독특한 세계를 여리가
지 정황 속에서 생동하게
체험할 수 있다.

5개의 관람실마다에
8~9개의 의자가 놓여있
는데 관람자들은 의자에
립체안경을 끼고 앉아 영
화를 감상한다. 영화상영
이 시작되면 첨단기술로
제작된 3차원동영상들이
비쳐지고 정황에 따르는
음악효과와 룹동의 자의
진동과 움직임이 안반침
된다.

시
론

알고보니 《통일준비위원회》 라는 것은...

남조선에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간판을 단 기구의 정체가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이 얼마 전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면서 《북봉피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가 담긴 저장매체(USB)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 10일에도 《통일준비위원회》부위원장인 정종욱이 강연도중 《통일준비위원회》내에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을 위한 팀》이 있다는 사실을 실로하면서 비공개리에 《남북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해 실로하였다.

이번에 《북봉피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까지 드러나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북의 《제도봉피》를 노린 체제대결의 기구라는 것이 더욱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북은 격하게 반응하며 남측당국을 단죄해나서고 있다. 북, 남, 해외 곳곳에서 격례의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

북은 지금껏 북남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분별 70년이 되는 이해에 들어와서는 북남관계의 혁신을 새롭게 쓰자고 웨치고 있는데 정작 동족의 화해의 손

을 맞잡아야 할 남측당국은 외세에 추종하여 대결을 계속 추구하고 그 밑바탕에 《제도통일》의 기도가 깔려있었다는 것 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자기들을 해치려고 앙심을 품고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의 큰 기구까지 만들었으니 그런 상대를 누가 이제 신뢰하고 그와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현 집권자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니 사실상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드레즈멘선언》이라는 것을 행성의 다른 끝인 도이췰란드에 가서 발표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왜 말했는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명백하게 안겨온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파 시민사회단체들, 언론, 전문가들도 《통일준비위원회》가 《가뜩이나 열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를 즉각 해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시민자문단 탈퇴를 선언하였다. 진보적인 투쟁단체들은 박근혜의 《통일정책》이 이전 독재자들의 《멸공통일》, 《흡수통일론》이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단죄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자가 얼마 전 《드레즈멘선언》발

표 1년을 맞으며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된 책임이 북에 있다.》고 북남관계가 계속 파국으로 질주하는 책임을 북에 떠넘긴 것은 낫가죽이 두텁다는 말도 무색케 할 과정 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북은 《봉피》 하지도 않으며 더우기 《체제통일》은 망상이다. 그것을 추구하니 북남관계가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악화되기만 하는것이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는 것이다.

북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 제도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라며 자부심과 행복감에 넘쳐있다. 하지만 남조선에 자기 제도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 공화국정부이다.

남조선당국이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동족의 관계개선 노력에 끝까지 도전하며 체제대결로 계속 나간다면 북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미 북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대결에 환장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그 사소한 불씨라도 자기 땅에 훕긴다면 용서하지 않고 《통일대전에 나설 것》이라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이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진정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어리석은 《체제통일》의 꿈을 접고 진정한 화해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남조선에서 4.3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어언 67년 세월이 흘렀다.

4.3인민봉기는 자주적이고 통일된 땅에서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혐원을 이루기 위한 제주도인민들의 의로운 반미구국항쟁이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인민들은 《5.10선거》로 남조선에

단독적인 《정부》를 세워 민족을 영원히 분열시 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에 분노하여 《〈단독선거〉 분쇄하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미제의 주구를 태도하라》, 《조선통일 만세!》 등의 구호밑에 영웅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당황해난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수많은 병력과 함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제주도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를 확보해야 한다.》, 《전심에 휘발유를 퍼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

제주도민의 4분의 1에 해당한

무려 7만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으며 최남단의 거대한 섬은 말그대로 《폐의 섬》으로 변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남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그에 빌붙어 잔

명을 유지해가는 친미사대굴

종세력에 의해 민족적 자주권

과 존엄이 짓밟히고 민주와 인권이 참혹히 유린당하고 있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보수당

국이 《종북척결》의 미명하

에 벌리고 있는 파쑈적인 탄압 소동은 67년 전 제주도를 휩쓴 범죄적인 학살극을 현상케 하 고있다.

4.3인민봉기를 《북의 사족》을 받은 폭도들의 《란동》으로 매도하고 끔찍한 학살극을 벌린 리승만 《정권》처럼 현 박근혜 《정권》도 자주, 민주, 통일을 부르짖는 의로운 사람 들과 단체, 정당을 모조리 《종북》의 모자를 씌워 탄압하고 해산하며 폭압의 광기를 부리고 있다. 탄압의 파

년도 그전과 같은 의로운 통일세력이 고북과 련계시켜 죄인으로 몰아 칼을 휘두르는 그 수법도 67년 전과 꼭 같다. 그러한 파

쑈폭압만행으로 어제는 제주도민들이 폐를 휘렸다면 오늘은 온 남녀이 《종북토벌》마당으로 되고 자유와 인권, 민주가 죽어가고 있다.

《종북》의 너울을 씌우고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

대판 《마녀사냥》은 온 남조선을 죽음의 제주도로 만들고 있다.

리어금

《피의 제주도》로 화하는 남조선

《자주민보》 강제폐간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2월 24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이러한 행위를 강제폐간한 남조선피뢰대법원이 폭거 무법천지임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지난 13일 남조선피뢰대법원이 진 박근혜의 당선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커녕 자주, 민주, 통일 정한데 대해 언급하

북과 남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애국적 언론인 《자주민보》를 폐간 시킨 것은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을 짓밟는 반통일역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박근혜의 당선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커녕 자주, 민주, 통일 정한데 대해 언급하

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언론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일삼은 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두고두고

《자주민보》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족의 혐원인 통일을 위해 7.4공동

본사기자

위험천만한 《종미》

어리상을 해가며 일언반구 없던 남조선당국이 얼마 전에 있은 미국대사장별 사건을 놓고는 그 무슨 《용서》니, 《사죄》니 하다 못해 보수멸거지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진정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어리석은 《체제통일》의 꿈을 접고 진정한 화해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이 바로 집권세력으로부터 정계와 군부, 사회의 각이한 부문에 《종미》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하여 언제 한번 읊은 소리, 바른소리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는 관계없이 미국이 하라는 《종미》이다.

자주의식이라고는 털끝만큼

도 없는 《종미》에 매달리는 보수집권세력은 력대로 미국에 대하여 언제 한번 읊은 소리를 해왔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왔다

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남조선을 전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을

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면서 북의 태도변화를 견인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서저들의 하수인들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섬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탄시키였다.

민족분렬의 70년을 끝내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공화국의 선의있는 노력을 위하여 북남사이에는 일련의 접촉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접촉에 나서는 기미를 보이자 런던아 국무부부장관, 국무부 차관보 등을 남조선에 들어보내어 《핵무기·탄도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북에 대한 도전에 《공동대응》하여야 한다느니, 《무모한 행동과 추악적인 도발에 관한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느니 하며 침울 놓았다.

또한 북과 남이 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일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자 미국은 직도상공에 《B-52》 전략 핵폭격기를 들이밀어 핵폭탄투하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였다.

뒤이어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 국무장관 케리는 《북핵 문제

에 얹매이고 대미추종의 한길만을 계속 간다면 《미국의 속국》이라는 치욕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또 미국이 지금 《북조선봉피》를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대조선압살을 위해 북침전쟁연습강행, 무력증강 등 갖은 범죄적책동을 다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반면에 침략적인 미국에는 덮어놓고 추종하여서는 이 조선반도에서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종미〉가 문제이다.》, 《사대사고가 빠져까지 절은 남녀》, 《〈종미봉북〉을 추구하는 남조선》, 《외세에 빌붙어 연명하는 역적들에게 3대멸족의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개탄파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을 망하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종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동족과 화해하고 힘을 합치는 길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도 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침략적인 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의 《싸드》 배치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얼마전 공화국과 린접한 이웃나라 국경지역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벌리던 남조선간첩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자백으로 드러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서 가장 염중시되는것으로 내외의 시선을 끌고있는것이 수뇌부에 대한 테로범죄기도이다.

2010년 공화국 최고수뇌부의 외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 2011년 민족의 대국상 이후 최고수뇌부의 건강과 현지지도 등

의 자료들을 수집하며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 기회를 노렸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막후조종을 받으며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고 벌리고 있는 특대형 범죄행위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것이 아니다. 미국과 해마다 벌리는 군사연습들에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계획》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첨단 무기의 구매와 개발도 첫 목표가 최고수뇌부로 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2012년 4월 남조선 국방부는 최신순항미싸일

을 공개하며 《평양의 집무실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할수 있다.》고 밝혔으며 2013년 2월에는 최신 함대지, 잠대지미싸일을 공개하며 《지휘부창문을 풀라 타격할수 있다.》, 《지휘서력응징》을 떠들었다. 몇해전에는 겨례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가는 공화국 각지의 동상과 대기념비들을 파괴하려고

될지 모르고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영도자를 운명의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군대이고 인민이다.

공화국에서 수령결사옹위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고 행동으로 되고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단호한 정벌을 안기라는 분노와 멸적의 합성들이 강산을 진감시켰었다.

공화국의 전사회에 꽉찬 수령결사옹위정신, 평범한 날에도 발휘되는 그런 정신은 결전의 나날에는 최고도로 발휘되며

최고수뇌부에 대한 용서 받을수 없는 특대형태로 범죄시도 그 하나님으로

도 화약더미에 불을 다는것처럼 공화국 군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인류사에는 한방의 총성이 세계대전을 불러온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치열리는 공화국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범죄기도는 그와는 대비도 될수 없는 위험천만한것이다.

자기의 최고존엄을 훼손하고 최고수뇌부의 안전을 노리는 적대세력은 그가 누구이든 그 어느곳에 박혀있든 상상도 못할 타격으로 끝까지 정벌하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를 남조선당국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정부원

모략과 범죄의 속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제도봉파》와 《금변사태》설을 요란스레 떠들어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우리 겨레는 그때마다 격분을 터치면서 어떻게 되어 저런 가을빼우기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는가 의아해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 정보원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렬하고 음모적인 수법으로 반공화국정탐모략으로 행위에 매달리다가 체포된 간첩들의 진술에 의해 그 《의혹》은 깨끗이 풀리게 되었다. 공화국의 수뇌부에 대한 테로와 모략적인 《인권》 소동, 파괴 암해

책동으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한 것이다.

밝혀진 테로음모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하며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것이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갖은 불순한 방법으로 공

화국을 《봉파》에 물 아가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립증할 여지없는 사실로 되었다.

지금 그 범죄적기도를 앞장에서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는것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의 정보원이라는 것은 동족대결을 생리로 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적인 적대행위들을 꾸며오고 집행해온 음모와 범죄의 소굴이다.

음지에 자라는 독버섯처럼 어두운 그늘속에서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비 및 자료들을 수집하고 무엄하게도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일심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모략과 음모를 고안해내는 것도 부족해 외세와 야합하여 터무니없는 반공화국 《인권》 관련 자료들을 날조하고 《비법무기판매》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모략자료들을 조작하며 《테로지원국》의 모자를 씌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온것이 정보원의 범죄행적이다.

지어 남조선의 정보원은 《위조화폐제조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범죄적인 제재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너절한 놀음도 앞장에서 벌리였다.

본사기자 서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군과 남조선군

『독수리』의 빛을 은은히 드리우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위협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합동참모본부의 장은 남조선집권자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등과 만나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며 지휘, 통신, 통합미싸일방어(IAMD)연습 등을 모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내외호전세력은 무모한 『독수리』 합동전쟁연습의 북침화약내를 더욱 요란스레 퍼워 대고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런합해상기동훈련과 공화국의 지역과 류사한 포항시에서 상륙훈련을 진행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상륙함, 이지스구축함, 초계함, 잠수함 등 30여

척의 합정과 수천명의 남조선미국의 해군과 해병대무력이 동원되어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된 련합해상기동훈련과 80여대의 비행기와 4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가 투입되어 전쟁광기를 부린 상륙작전훈련으로 남조선전역에는 질은 전쟁화약내가 풍기였다.

한쪽에서는 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 다른쪽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은것은 전쟁전야의 살벌한 움직임을 방불케 하고있다.

기승을 부리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는 내외호전세력들이 떠드는 《년례적》이나, 《방어적》이니 하는 훈련이 한갓 기만에 불파하며 《독수리》 전쟁연습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정면 도전하여 내외호전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전쟁광기를 더욱 부리고있는것은 누가 이 땅에서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원하는 가를 세계앞에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라고 그칠새 없는 북침전쟁연습이 어느 순간에 실전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내외호전세력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텅긴 한 점의 불꽃이 전지역에 타번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공화국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구걸하지는 않는다. 자기를 기어이 해치려는 적대세력에게 자위의 억센 힘으로 단호한 정벌을 안기는것은 공화국군대의 멸적의 의지이고 기상이다.

최근에 공화국에서 진행된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등은 공화국군대의 막강한 군력과 멸적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막강한 핵억제력과 다양화된 타격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의 《핵동동이》는 허수아비가 지탱하고있는 막대기에 불과할따름이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가려보지 못하고 세계제패야망과 어리석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겠다고 이 땅에서 기어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제가 지른 불에 타죽을것은 도발자들이고 북침전쟁광신자들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위험천만한 빠라살포소동중지를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3월 26일 남조선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공화국빠라살포소동의 중지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자기들이 미국에서 반공화국빠라살포소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활동기간 빠라살포행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분계선지역주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짓이라는데 대해 날낱이 폭로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공화국빠라살포행위는 영원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리익을 위해 북을 자국하는 빠라살포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걷어치우고 고고도 요격미싸일 《싸드》 배치책동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만평 오도가도 못하고



서울에서 남조선 전지역의 공무원, 교원

8만여명 반《정부》 투쟁 전개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3월 28일 서울에서 당국의 공무원연금개악책동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가지였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공무원, 교원 8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나 적은 로임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줄이게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끌끌내며 강행하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조작하고 여기에 공무원, 교원단체들이 참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권력에 추종하는 이런 기구는 인정할수 없으며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부정부폐와 부자감세정책으로 부족되는 자금을 공적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

박근혜때문에로동자들의 삶이 끝장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일어나 현 《정권》 심판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 《정부》 투쟁으로 한줌도 안되는 보수집권세력과 재벌들을 청산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생존권 지켜내자!》를 비롯한 구호판 등을 들고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박근혜폐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공적년금 강화하라!》, 《공무원연금개악 중단하라!》, 《정권이 횡책하는 재벌감세, 기업감세 철회하라!》고 웨치며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 망울
진 아지마다 꽃들이 다투어 피
여나는 봄이다. 청명을 앞두고
우리가 찾은 평양시교외의 통
성구역 통연산 칠성봉마루에
도 봄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이
곳에는 지난날 인생의 어지러
운 파거와 결별하고 북에 들어

칠성봉의 영령들은 말한다(1)

— 재북인사들의 묘를 찾아서 —

신념으로 택한 북행길

재북인사들의 묘가 들어앉은 칠성봉은 나지막한 봉우리였다. 바라보니 해살이 따스하게 비쳐드는 이런 아득한 곳에 묻히면 진짜 안식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행한 현영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원이 이곳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끊고 통일성업을 위해 활동한 남조선의 각계 인사 60여명이 안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묘에 묻힌 그들의 이름을 유골안치의 순서에 따라가며 외워보았다.

배중현(초대 『국회』 의원), 정인보(국학대학 학장, 초대 감찰위원장), 안재홍(미군정 청 민정장관, 2대 『국회』 의원), 송호성(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김효석(내무부 장관), 박렬(『재일 한국인 거류민 단장』), 김약수(초대 『국회』 부의장), 박보령(『너자국민당』 부위원장), 백상규(『대

와 통일애국의 참된 삶을 누려온 재북인사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한적십자사》부총재), 조현영(초대, 2대 『국회』 의원), 리춘호(서울대학교 총장), 고명우(세브란스병원 원장)…

모두가 한때 남조선에서 북잡한 인생경력을 써온 사람들 이었다. 해방후 남조선의 초대 『국회』에서 국우파에 속해 있으면서 『국회』 소장과 의원들의 『미군철수안』에 맞서 『미군장기주둔요청안』을 기안했던 조현영선생이 바로 그 리했고 무정부주의자, 『반공투사』로 유명했던 박렬선생 그런 그들을 미군이 서울을 다시 강점하면 가 만들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다.

현영애부원은 그 사연을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미군이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벌리며 탈려들던 1950년 9월 급변하는 정세를 주시하며 불안과 초조속에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울에 남아있던 남조선의 이전 정객들이였다.

그들로 말하면 상해림정에 몸담고있으면서 해외에서 반

일독립운동을 하였으며 해방 후 남조선의 정계에서 미국의 식민지 강점정책에 추종하다가 1948년 남북련석 회의에서 눈을 새롭게 뜨고 련공애국의 길에 들어선 민족주의자들과 당시 30~40대로서 원내무대에서 정면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도전하여 견결하게 싸운 『국회』 소장과 성원들 그리고 김효석, 조현영과 같이 국우의 속해 있던 인사들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정계, 학계, 사회계인사들로 정치인 및 『국회』 의원협의회를 끊고 공화국정부의 민족을 위한 애국의 시책들을 지지 친동해나섰었다.

그렇다고 하여 북으로 가자니 미국에 추종하며 리승만통치 기관에서 복무한 자기들을 북에서 어떻게 대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기들을 구원해줄 운명의 구세주는 김일성장군님뿐 이시라는 오직 하나님의 굳은 믿음이 있어 그들 모두는 전시의 나날 북행을 결심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남조선의 이름있는 애국적 정계인사들이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에 들어올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시면서 그들의 소망대로 평양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

를 불문하고 손잡고 나가는 것인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 정계인사들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 환영 사업을 잘해 주며 애국적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 주도록 응원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진정 동서고금의 그 어느 갈피에 전쟁의 종하를 한몸에 지니신 하나님의 령도자가 반공에 집념 하던 완고한 우의인사들로서 오히려 짐이 되면 되었지 전쟁수행에 아무리 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고령의 민족주의자들을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린 적 있었는가.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조소양 선생은 『이제는 림정계 협상과를 비롯한 이남의 정치인 및 『국회』 의원들 모두가 살게 되었소.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 곳으로 어서 갑시다.』 라며 걱정을 터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김규식, 조소양,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오하영, 송호성, 김경배, 백상규를 비롯한 련공협상파, 『국회』 소장파, 서울잔류파 정치인들과 기타 인사들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신념을 안고 북행길에 올랐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전시립북자』로 날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천만부당한 혁사의 오도인가.

본사기자 흥법식



청

명

예로부터 청명이란 하늘
이 점차 맑아진다
는 뜻이다.
말그대로 이즈음
부터 맑고 밝은 날
씨가 시작된다.
해마다 양력으로
로는 4월 4일 또는
5일이다.
따뜻한 양지쪽
에서는 진달래가 멀기
멀기 피어나며 농민들
은 밭갈이를 힘차게 다
그친다.
예로부터 청명날이 오
면 우리 겨레는 선친들

파친지들의 산소를 찾
아 봉분우에 자란 잡초
를 베고 겨울난 혼적을
손질하였으며 주위를 깨
끗이 거두고나서 페의를
표시하곤 하였다. 청명
날 선조들의 산소를 돌
아보는것은 폐절바르고
도덕의리가 깊은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례의법률에서 나온 풍습
이였다. 이 풍습은 오늘
도 이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 22대 왕
정조시기(1777-1800)에
는 그와 관련한 규정까
지 만든 일이 있었다. 당

본사기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해마다 봄, 가을에 산파
들에 나무를 심고 정성껏
관리하는 좋은 전통을 가
지고있다.

물론 당시 나무심는 일
은 많은 경우 량반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주로
왕궁이나 관청안팎에 수
종이 좋은 나무만 풀라 심
고 관리하곤 하였다.

조선봉건왕조 22대 왕
정조시기(1777-1800)에
는 그와 관련한 규정까
지 만든 일이 있었다. 당

시령의정으로 있던 서명
선이 왕에게 궁안팎에 나
무를 심을 것을 제안하면
서 11개 항으로 된 관리규
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식물실총』
(또는 『식목
절목』) 이였

다. 그 내용은 매년 봄과
가을에 도청이 주관하여
궁안팎에 나무를 심고 관
리할 것, 군문(군사업무를
맡은 관청)이 직접 나서서
궁안에 나무를 심고 관리
할 것, 심은 나무는 말라죽

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가볍게 뽑지 말
것 등으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비록 왕궁의 나
무심기와 관리를 목적으로

들이 많다. 자귀나무를
심어놓으면 부부사이의
정이 더 두터워지고 석류
나무를 심으면 자손이 많

이 생긴다는 이야기, 사람
이 죽어서 다른 나무로 태
여난다는 전

은 세나라시기부터 근대
에 이르기까지 몇몇 수종
의 나무에 크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다.

오늘 날 나무심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랙원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신 때부터 전민, 전군이 떨쳐나서 진행하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사
화

설

128

(3)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젊은이는 침중히 머리를 끄덕여보이고 『보살 님이 굽어살피시여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너무 상심말아.』 하며 걱정을 함께 하듯 야릇이 한숨을 토했다. 못내 감복된 설매는 저도 물래 울적한 심정이 슴백 목소리로 『고마워.』 하며 말끝을 흐린채 옷고름을 눈꺼에 대였다.

『사람은 마음먹기 탓이지. … 난 날이 새면 동무와 함께 삼년공부를 다 마치고 장안의 성균관으로 입학하려 떠나게 되오.』

마주보는 설매의 눈빛은 련민의 정으로 반짝대였다.

『부처님이 굽어살피사 입학하기를 진정…』

설매의 진심이 깃든 소원의 목소리였다.

『고마워, 나를 찾겠으 면…』

이때였다. 저만치의 나무숲에서 젊은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뭘 해? 벼슬길에 오르면 절세가인들이 많을텐데, 시끌쳐녀와.』 하며 소리내여 웃었다.

젊은이는 당황해하며 설매를 향해 『나와 함께 삼년공부를 마친 친구요. … 스님들도 볼수 있으니 이만 돌아가겠어.』 하며 스적스적 후원밖으로 자욱을 옮겼다.

웃고름을 입가에 대채 멀어져가는 젊은이를 지켜보는 설매의 심중에서 불현듯 (마음먹기 탓!) 하

는 정찬 소리가 귀전에서 다시 울렸으며 아울러 마음속에선 소원을 성취하고야 말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젊은이를 만나기 전엔 소원을 성취하는 길우에 막아나설 모든것이 시종 두렵게만 생각되던 나약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정이 돌변하여 막아나설 모든것을 짓밟고서라도 소원을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강한 의지가 확연함을 부인 할수 없었으며 아울러 이런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여 갑자기 생겼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설매는 방금전 일이었으나 젊은이와의 상봉이 황홀한 꿈만 같아 후원밖 이런 정황은 너성의 한

생에서 두번 맞게 되는데 그중의 처음이 이성적 사랑의 심정을 처음으로 감수한 때부터이고 다음은 그 사랑에 이어진 어머니가 되었을 때이다. 이때는 심리적으로 감성적인 모든것에 대한 반응이 강렬하고 의지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고금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 한두가지뿐이라.

설매는 오래도록 자리를 틀 수 없었다. 모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달빛속의 먼발치에서 조용히 이야기한 젊은이의 말마따이였으나 살틀한 인정이 슴백 천금싸게 가진 첫 이성의 속삭임이기도 하였다.

설매는 방금전 일이었으나 젊은이와의 상봉이 황홀한 꿈만 같아 후원밖

에 감속에 보군들과 의녀들을 뒤집고 곧추 명통사로 향하였다. 그곳에 닿은 상궁의 일행은 거침없이 대문안으로 밀려들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마주

오는 주지승과 중들을 향해

상궁은 폐를 표한 다음

설매를 차고나온 천말을 이야기하였다.

설매는 들판에 놓은 허리에 걸친 천을 풀고는

게 하였는데 종낮이 지나 서야 설매가 고개너머 령통사에 류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나무심기와 관련한 일화, 전설

설도 있다.

『동국세사기』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집집마다 파일나무를 떳그루씩

심어놓고 제사에 쓸

파일을 자급자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민족

는 처음이었다.

이제 조속히 방책을 찾지 못한다면 장차 아무리 후회막급한 탄식을 토한 그것은 마가을 철의 부채질과 같은 격으로 될수 있다.

의녀가 마루에 놓은 조통속의 폐풀새가 자기의 화신처럼 가엾게 생각되었다. 몇방울의 폐를 얻으려 의녀의 선뜩한 장도 칼풀이 폐풀새의 뼛을 사정없이 쳐를 것이다. 그러나 설매도 속마음은 초의 목식하는 지금보다야 금의 육식하는 신선 같은 궁전 생활을 어찌 마다하겠소이까. 첫걸음마는 서럽지 만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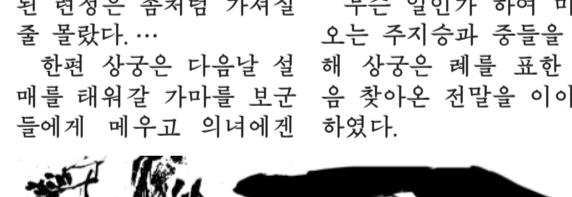
주지승은 듣다 못해 손을 들어보이며 상궁의 장황한 이야기를 앞질러 막았다. 『가만.』 하며 의녀가 든 폐풀새조롱을 손짓해보였다.

『저 폐풀새는 뭔고?』

설매는 방문안에 흘로 선채 문틈새로 상궁과 주지승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정 애간장이 타는 순간순간이였다.

가마를 타지 않을 방책이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속세와 결별한 녀승은 되고 싶지 않았다. 설매는 시간의 귀중함을 이해처럼 절감하기



…그러니 설매를 어서 가마에 태워 궁중으로 데려가겠소이다.

주지승의 낯빛은 침중하였다. 명석에 누운 외숙도 알 길이 없었다. 하여 안이 단 상궁은 보군들을 내몰아 설매의 행방을 알아보았다.

『여기는 의천대각국사 님이 설립한 신성한 사찰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상

들이 많다. 자귀나무를

심어놓으면 부부사이의